



제목	A History of Iran: Empire of the Mind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Basic Books
발행일	2016. 5. 24.
저자	Michael Axworthy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384
ISBN 또는 ISSN	978-0465098767

내용 요약

이 책은 페르시아가 문화적, 종교적으로 엄격하게 통합되거나 동질적인 국가였는지 없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조로아스터교가 페르시아인들에게 선과 악의 경쟁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아케메네스 왕조는 박트리아로 팽창하고, 정복되지 않은 그리스와 의기투합하여 세계의 상품과 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페르시아의 영향력은 로마와 비잔틴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 로마와 아르사케스 왕조 사이에 수세기에 걸친 전쟁으로 로마 전역에 아시아 상품과 미트라교가 도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저자는 아랍, 투르크, 몽골이 페르시아에 침입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아랍 정복은 페르시아에 혹독한 시련을 가져다주었고, 이는 뛰어난 페르시아 시를 탄생시켰다. 가령 페르도우시(Ferdowsi)의 『샤흐나메(Shahnameh)』는 이슬람 정복 이전의 페르시아의 영광을 찬양한 것이다. 몽골의 공포도 창작력을 소멸시키지 않았다. 루미(Rumi), 이라키(Iraqi), 사디(Sa'di), 하페즈(Hafez)의 작품들은 보편적으로 칭송 받는다.

어느 누구도 페르시아가 안정성과 평온을 즐겼다고 말하지 않는다. 왕조 변화는 격렬했고, 시아파는 국내 알력, 수니파의 위협, 다른 신앙의 간헐적인 침입에 상당히 익숙하였다. 그러나 이질적인 국가의 부, 생산성, 무역이 페르시아를 문화적,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국가로 만들었다. 페르시아의 부는 18세기 아프간과 오스만 침입자들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왔다. 그 영광은 레자 팔레비와 함께 종결되었다. 저자는 이란의 혁명, 정쟁, 핵 위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 이란의 미래에 대해 낙관하였다.